

# 하단정화(영단단화) (下壇幀畫(靈壇壇畫))

문화재전문위원 洪 潤 植

## 目 次

- 一. 緒 言
- 二. 下壇幀畫의 圖說內容
- 三. 下壇幀畫의 性格
- 四. 結 語

## 一. 서 언(緒 言)

한국(韓國) 불교신앙(佛敎信仰)의 구조적 성격(構造的 性格)을 보면 대체(大體)로 상단신앙(上壇信仰) 중단신앙(中斷信仰) 하단신앙(下壇信仰)의 삼단구조(三壇構造)를 지니고 있음을 살필 수 있게 된다.<sup>1)</sup> 즉(卽) 상단신앙(上壇信仰)이란 불보살(佛菩薩)에 대(對)한 신앙(信仰)이요 중단신앙(中壇信仰)은 불교(佛敎)의 호법선신(護法善神)인 신중(神衆)에 대(對)한 신앙(信仰)이며 하단신앙(下壇信仰)은 조상숭배(祖上崇拜)의 신앙(信仰)이라 하겠다. 그리하며 이들은 각각(各各) 다시 상단(上壇)은 불단(佛壇) 중단(中壇)은 신중단(神衆壇) 하단(下壇)은 영단(靈壇)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삼단신앙(三壇信仰)은 각자(各自) 독립적(獨立的)인 신형형태(神形形態)를 지니는 것이라기보다 상호(相互) 관계성(關係性)의 질서(秩序)위에 신앙(信仰)되어지는 것이다. 이와같은 신앙상(信仰上)의 상호(商號) 관련성(關聯性)인 질서(秩序)는 가람형성(伽藍形成)과도 깊은 관계(關係)를 지니고 있어 무척 흥미(興味)를 끌게 한다. 한국사원(韓國寺院)의 어디를 가든지 전기(前記) 삼단(三壇)은 모두 갖추고 있다. 그리고 각기(各己) 삼단(三壇)에는 그 신앙(信仰)의 내용(內容)을 도설화(圖說化)한 정화(幀畫)를 현괘(懸掛)하고 있다. 그런데 본고(本稿)에서는 하단정화(下壇幀畫)의 도설내용(圖說內容)이 무엇인가를 구명(究明)하고 또한 그와 같은 하단정화(下壇幀畫)를 통(通)하여 하단신앙(下壇信仰)의 성격(性格)이 어떤것인가를 살피고저 한다.

## 二. 하단정화(下壇幀畫)의 도설내용(圖說內容)

하단(下壇)은 대체로 대웅전(大雄殿)의 향좌(向左) 혹(或)은 향우(向右)의 벽면에 설치

(設置)한다. 또한 명부전(冥府殿)(선운사(禪雲寺)의 경우) 혹(或)은 지장전(地藏殿)(용주사(龍珠寺))에 설치(設置)하기도 한다. 하단(下壇)에는 영가(靈駕)의 위패(位牌)가 봉안(奉安)되고 그 뒷면에 하단정화(下壇幀畫)가 현괘(懸掛)된다. 정화(幀畫)를 걸지 못할 경우에는 「남무대성인왕보살(南無大聖引王菩薩)」이라 쓴 번(幡)을 내어 걸기도 한다. 그리고 이 하단(下壇)에서는 주(主)로 영가(靈駕)(망인(亡人))에 대(對)한 시식의예(施食儀禮)(제사(祭祀))를 행(行)한다. 이로 보아 하단신앙(下壇信仰)은 망인(亡人)의 천도(薦度)를 위(爲)한 신앙(信仰)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하단(下壇)을 영단(靈壇)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問題)는 이와 같은 불교(佛敎)의 망인천도신앙(亡人薦度信仰)이 어디에 근거(根據)를 두고 있느냐 하는데 있다. 하단정화(下壇幀畫)는 그와 같은 신앙근거(信仰根據)와 내용(內容)을 한 폭(幅)의 그림에 담고 있는 것 같아 무척 흥미(興味)를 끌게 하는 것이다. 대체(大體)로 하단신앙(下壇信仰)의 소의경전(所依經典)은 「불설우란분경(佛說盂蘭盆經)에 의거(依據)하고<sup>2)</sup> 그 의궤(儀軌)는 불설구발염아귀다라니경(佛說求拔焰餓鬼陀羅尼經)」이나<sup>3)</sup> 「유가집요구아난다라니염구궤의경(瑜伽集要救阿難陀羅尼焰口軌儀經)」<sup>4)</sup>에 의거(依據)한다.

그러면 다음에 본정화(本幀畫)의 도설내용(圖說內容)을 살펴보고 그 성격(性格)을 구명(究明)해 보고자 한다.

우선 본(本) 하단정화(下壇幀畫)의 내용(內容)을 구명(究明)하기 위(爲)하여 다음 자료(資料)를 채택하였음을 밝혀 둔다.

(1) 용주사 지장전 하단정화(龍珠寺 地藏殿 下壇幀畫)

- ① 제작년대(制作年代) 1970年
- ② 화사금어상훈 유사 성환 홍민(畫師金魚尙薰 宥私 性玩 弘旻)
- ③ 규격(規格) 가로 309cm, 세로 156cm

(2) 신록사 극락보전 하단정화(神勒寺 極樂寶殿 下壇幀畫)

- ① 제작년도(制作年度) 1900年
- ② 화사 금어비구 수경 승환(畫師 金魚比丘 繡璟 承環)
- ③ 규격(規格) 가로 284cm 세로 214cm

(3) 통도사 영산전 하단정화(通度寺 靈山殿 下壇幀畫)(통도사 영산전 하단정화)

- ① 제작년도(制作年度) 1900年
- ② 화사 동호 진징 경민(畫師 東湖 震徵 庚敏)
- ③ 규격(規格) 가로 205cm 세로 216cm

(4) 봉은사 대웅전 하단정화(奉恩寺 大雄殿 下壇幀畫)

- ① 제작년대(制作年代) 1892年
- ② 화사 미상(畫師 未詳)
- ③ 규격(規格) 가로 316cm 세로 189cm

(5) 서울 신흥사 대웅전 하단정화(新興寺 大雄殿 下壇幀畫)

- ① 제작년대(制作年代) 1926年
- ② 화사 미상(畫師 未詳)
- ③ 규격(規格) 가로 292cm 세로 192cm

(6) 하동 쌍계사 대웅전 하단정화(河洞 雙溪寺 大雄殿 下壇幀畫)

- ① 제작년대(制作年代) 1728年
- ② 화사 명정 최우 원민 처영등(畫師 明淨 最祐 元敏 處英等)

③ 규격(規格) 가로 302cm 세로 26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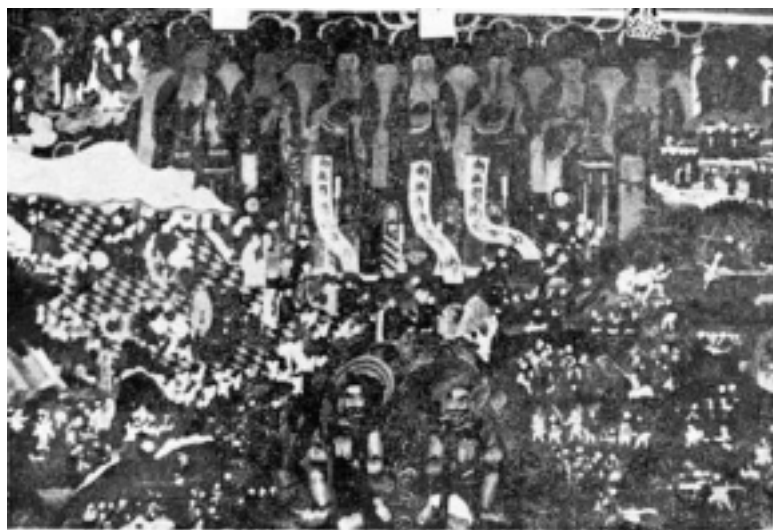
(7) 가평현등사 극락전 하단정화(加平懸燈寺 極樂殿 下壇幀畫)

① 제작년대(制作年代) 1728年

② 화사 미상(畫師 未詳)

③ 규격(規格) 가로 272cm 세로 196cm

이상(以上)과 같은 자료(資料)를 먼저 용주사 지장전 하단정화(龍珠寺 地藏殿 下壇幀畫)를 표본자료(標本資料)로 하고 여타자료(餘他資料)를 비교(比較)하면서 본 하단정화(本 下壇幀畫)의 도설내용(圖說內容)을 살펴볼까 한다. 용주사(龍珠寺) 하단정화(本 下壇幀畫)의 도설내용(圖說內容)을 보면 정화상단(幀畫上段)에는 칠여래입상(七如來立像)을 일렬로 배치(配置)하고 칠여래(七如來) 중심부분(中心部分)에 줄을 쳐서 그 줄에 향좌(向左)로부터 남무백억화신석가모니불(南無百億化身釋迦牟尼佛) 남무청정법신비로자나불(南無淸淨法身毘盧舍那佛) 남무원만보신노자나불(南無圓滿報身盧舍那佛)의 번(幡)을 걸어 놓고 있다. 그리고 칠여래(七如來) 향좌(向左)에는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 그 좌하(左下)에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의 영가 극락접인용(靈駕 極樂接引用)의 련(輦)으로 보이는 것이 천녀(天女)들에 둘러 싸여 있다. 칠여래(七如來) 향우(向右)에는 지장보살상(地藏菩薩像)과 관음보살상(觀音菩薩像) 그 우(右)에 천녀(天女)들에 둘러 싸인 극락래영용(極樂來迎用) 련(輦), 칠여래(七如來) 바로 하방(下方)에는 불전(佛前) 공양(供養)을 위(爲)한 성반(盛飯)이 놓이고 그 하방(下方) 향우(向右)에는 재의식 승(齋儀式僧)의 재의식(齋儀式) 광경(光景)이 묘사(描寫)되어 있고 바로 그 하방(下方)에 상제사인(喪制四人) 성반(盛飯) 향우하방(向右下方)에 아귀상(餓鬼像) 일구(一軀)가 있고 극락래영용련(極樂來迎用輦) 하방(下方)에는 세속세(諸俗世)의 생활상(生活相)이 묘사(描寫)되어 있으며 극락래영용련(極樂來迎用輦) 바로 하방(下方)에 지옥문(地獄門)을 들어서는 여러 지옥중생상(地獄衆生相)이 있고 그 바로 위에 지장보살(地藏菩薩)이 지옥중생(地獄衆生)의 구제(救濟)를 위(爲)한 대원(大願)을 세우고 서 있다. 그 밑에는 여러 지옥(地獄)의 고통상(苦痛相)이 보인다. 이상(以上)에서 보면 본정화(本幀畫)가 지니는 구조적 의미(構造的 意味)는 영가천도(靈駕薦度)를 위(爲)하여 재의식(齋儀式)의 공덕(功德)을 쌓으면 칠여래(七如來)의 가지력(加持力)과 지장보살(地藏菩薩)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의 구원(救願) 및 접인(接引)의 힘을 입어 극락(極樂)에 래영(來迎)된다는 신앙적 의미(信仰的 意味)를 지니고 있으며 속계(俗界)의 세생활상(諸生活相)을 묘사(描寫)하고 있음은 육도중생상(六道衆生相)을 한국적(韓國的)인 생활상(生活相)을 빌려 설명(說明)하고 있는 것 같다. 각종(各種) 지옥상(地獄相)은 극락접인(極樂接引 來迎圖)와 더불어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의미(意味)를 표출(表出)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귀상(餓鬼像)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음은 「불설구발염아귀다라니경(佛說救拔焰餓鬼陀羅尼經)」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sup>5)</sup>. 그러던



다음에는 이상(以上)과 같은 도설내용(圖說內容)은 어떤 근거(根據)를 갖는 것인가를 살펴 보자.

먼저 칠여래상(七如來像)은 무슨 여래(如來)인가 하단신앙(下壇信仰)은 영가(靈駕)(망인(亡人))천도(薦度)를 위(爲)한 신앙형태(信仰形態)란 것은 전술(前述)한 바이나 이와 같은 신앙형성(信仰形成)의 구체적 모습은 하단 신앙의례(下壇 信仰儀禮)인 시식(施食)(제사(祭祀))의 형태에서 살필 수 있는데 여기 칭양성호(稱揚聖號)라 하여 칠여래(七如來)의 명호(名號)와 그 성격(性格)을 구체적(具體的)으로 나타내고 있다.

칭양성호(칠여래편차)((稱揚聖號 (七如來遍次))

(남무다보여래 원제고혼 파제간빈 범재구족  
 남무보승여래 원제고혼 각사악도 수의초승  
 남무묘색신여래 원제고혼 이추루형 상여원만  
 남무광박신여래 원제고혼 사육범신 오허공신  
 남무리포외여래 원제고혼 이제포외 득열반낙  
 남무감로왕여래 원제고혼 인후개통 획감로미  
 남무아미타여래 원제고혼 수념초생 극락세계)  
 南無多寶如來 願題孤魂 破除慳貧 法財具足  
 南無寶勝如來 願題孤魂 各捨惡道 隨意超昇  
 南無妙色身如來 願題孤魂 離醜陋形 相如圓滿  
 南無廣博身如來 願題孤魂 捨六凡身 悟虛空身  
 南無離怖畏如來 願題孤魂 離諸怖畏 得涅槃樂  
 南無甘露王如來 願題孤魂 咽喉開通 獲甘露味  
 南無阿彌陀如來 願題孤魂 隨念超生 極樂世界

즉(卽) 칠여래(七如來)는 제고혼(諸孤魂)으로 하여금 탐심(貪心)을 파제(破除)하여 범재(法財)를 구족(具足)하게 하고 각악도(各惡道)를 버리고 수의초승(隨意超昇)하게 하며 제(諸)두려움을 떠나 열반락(涅槃樂)을 얻게 하고 인후(咽喉)가 잘 개통(開通)하게 하여 감로미(甘露味)를 맛보게 하여 극락세계(極樂世界)에 왕생(往生)하게 한다는 여래(如來)로서 칠여래(七如來) 각각 독특한 기능(機能)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제고혼(諸孤魂)은 칠여래(七如來)의 이상과 같은 원력(願力)에 의(依)하며 극락왕생(極樂往生)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칠여래(七如來)의 소의경전(所依經典)이라 할 수 있는 「유가집요구아난타나니염구계의경(瑜伽集要救阿難陀羅尼焰口軌儀經)」에 의(依)하면 어느 날밤 아란(阿難)이 혼자 고요한 밤에 혼자 있을 때 삼경(三更)에 염구(焰口)라는 아귀(餓鬼)를 보았는데 몸은 메말라 바늘과 같고 입으로는 불을 뿜고 있었다. 아귀(餓鬼)가 아란(阿難)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사흘이면 명수(命數)가 다하여 아귀(餓鬼)로 태어나리라고 하니 아란(阿難)이 매우 두려워 하며 면고(免苦)의 법(法)을 묻자 내일(來日)로 그들 백천(百千)의 아귀(餓鬼)와 여러 바라문 선인들을 위하여 각각 한되씩의 떡을 것을 베풀고 나를 위(爲)해서는 삼보(三寶)를 공양(供養)한다면 너는 더 오래 살 것이며 나는 극락(極樂)에 갈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이에 아란(阿難)이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하자 다라니(陀羅尼)을 외면 능히 무려 백천(百千)의 시식(施食)을 충족(充足)시킬 수 있는 것이라하며 그 한 방법(方法)으로 다음과 같이 칭찬여래길상명호(稱讚如來吉祥名號) 할

것을 가르친다.

- 「제불자등 아급위여칭찬여래길상명호 능령여등영리삼도팔난지고 상위여래정제자」  
(「諸佛子等 我今爲汝稱讚如來吉祥名號 能令汝等永離三塗八難之苦 常爲如來淨弟子」)
  - 「남무보승여래 약유대중 일시위칭」  
「제불자등 약문보승여래명호 능령여등진로업화실개소멸」  
「(南無寶勝如來 若有大衆 一時爲稱」  
「諸佛子等 若聞寶勝如來名號 能令汝等塵勞業火悉皆消滅」)
  - 「남무리포외여래 준전위칭 하개여지」  
「제불자등 약문리포외래명호 능령여등 상득안락 영리경포청정쾌락」  
(南無離怖畏如來 准前爲稱 下皆如地」  
「諸佛子等 若聞離怖如來名號 能令汝等 常得安樂 永離驚怖清淨快樂」)
  - 「남무광박신여래」  
「제불자등 약문광박신여래명호 능령여등아귀침인엽화정소칭량통달 소수음식 득감로미」  
(「南無廣博身如來」 「諸佛子等 若聞廣博身如來名號 能令汝等餓鬼針咽葉火停燒清涼通達 所受飲食 得甘露味」)
  - 남무묘색신여래  
「제불자등 약문묘색신여래명호 능령여불수추루제근구족 상호원만 수승단엄 천상인간 최위제일」  
(南無妙色身如來  
「諸佛子等 若聞妙色身如來名號 能令汝不受醜陋諸根具足 相好圓滿 殊勝端嚴 天上人間 最爲第一」)
  - 남무다보여래  
「제불자등 약문다보여내명호 능령여등 구족재보칭의소수수용무진」  
(南無多寶如來  
「諸佛子等 若聞多寶如來名號 能令汝等 具足財寶稱意所須受用無盡」)
  - 남무아미타불  
「제불자등 약문아미타여내명호 능령여등 왕생서방극락세계 연화화생입불퇴지」  
(南無阿彌陀佛  
「諸佛子等 若聞阿彌陀如來名號 能令汝等 往生西方極樂世界 蓮花化生入不退地」)
  - 남무세간광대위덕자재광명여래  
「제불자등 약문세간광대위덕자재광명여래명호 능령여등획득오종공덕 일자어제세간최 위제일 이자득보살목단엄수승 삼자위덕광대초과일체외도천마 여일조세 현어대해 공덕외 의사자득대자재소향여의 사조비공이무한에 오자득대견고지혜광명신심명철 여유리주 제불자등 차칠여래 이서원력 발제중생 영리번뇌 탈삼도고안은상락 일칭기명천생 이고 중무상도」  
(南無世間廣大威德自在光明如  
「諸佛子等 若聞世間廣大威德自在光明如來名號 能令汝等獲得五種功德 一者於諸世間最爲 第一 二者得菩薩目端嚴殊勝 三者威德廣大超過一切外道天魔 如日照世 顯於大海 功德巍巍 四者得大 自在所向如意 似鳥飛空而無限礙 五者得大堅固智慧光明身心明徹 如留璃珠 諸佛子等 此七如來 以誓 願力 拔濟衆生 永離煩惱 脫三塗苦安隱常樂 一稱基名千生 離苦 證無上道」)
- 여기서 보면 전기 석문의범 시식편(前記 釋門儀範 施食編)의 칠여래중(七如來中) 감로

왕여래(甘露王如來)가 대신 세간황대위덕자재광명여래(世間黃大威德自在光明如來)로 바꾸어 지고 있음이 다르나 칠여래(七如來)의 서원력(誓願力)에 의(依)해 아귀(餓鬼) 등이 구제(救濟)를 받고 따라서 모든 선망열영가(先亡列靈駕)가 극락왕생(極樂往生)할 수 있다는 신앙내용(信仰內容)은 양자(兩者)가 같은 것이라 하겠다.

다음은 극락접인(極樂接引)의 경우를 보자. 수(數) 많은 천녀(天女)들에 둘러 쌓인 련(輦) 위의 보살상(菩薩像)이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다음 몇가지 사실(事實) 때문이라 하겠다.

(1) 시식의례(施食儀禮)의 영가시련절차(靈駕侍輦節次)나 봉송절차(奉送節次)에 「남무대성인노왕보살마사살(南無大聖引路王菩薩摩訶薩)」 삼설(三設)이 있고 거불(舉佛)에서 「남무접인망영인로왕보살(南無接引亡靈引路王菩薩)」이라 하고 있어 시식의례(施食儀禮)에 망령(亡靈)을 접인(接引)하는 인로왕 보살신앙(引路王菩薩信仰)이 행(行)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둔황발견(燉煌發見)의 불화중(佛畫中)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망인(亡人)을 낙토(樂土)에 인도(引導)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지장보살(地藏菩薩)과 함께 그려지고 있다.<sup>6)</sup>

(3)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과 함께 련(輦)을 배치(配置)하고 있음은 시련절차(侍輦節次)와 잘 부합된다.

다음은 이와는 대조적(對照的)으로 칠여래 향우(七如來 向右)의 구름을 타고 극락래영(極樂來迎)을 하는 모습을 살필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 극락래영(極樂來迎)은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와 관음세지보살(觀音勢至菩薩)로 그려지는데 여기서는 관음(觀音)과 지장보살(地藏菩薩)로 되어 있음이 조금 이상하나 극락접인 래영신앙(極樂接引 來迎信仰)은 서로 혼동(混同)되어 관음 인로왕보살 지장보살(觀音 引路王菩薩 地藏菩薩)등이 서로 엇갈려 신앙(信仰)되는 모습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sup>7)</sup> 그러나 이 관음(觀音)과 지장보살(地藏菩薩)을 래영도(來迎圖)로 보는 것은 향좌(向左)의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이 접인도(接引圖)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에 논술(論述)할 다른 자료(資料)와의 비교(比較)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안다.

극락래영(極樂來迎)이란 「왕생아미타불국경(往生阿彌陀佛國經)」에 의(依)하면 만약 중생(衆生)이 깊이 이 경(經)을 신(信)하여 왕생(往生)을 원(願)한다면 그 극락세계(極樂世界)의 아미타불(阿彌陀佛)은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등 무변의 보살을 보내어 그를 옹호 영접 하겠다는데 기인(起因)하고, 도작(道緯)은 「안락집(安樂集)」에서 그리고 선도(善導)는 「왕생예찬게(往生禮讚偈)」 및 「관념법문(觀念法門)」 등(等)에서 이를 인용(引用)하고 있다.<sup>8)</sup> 그리고 이와같은 근거(根據)에 의(依)해 일본정토종 등(日本淨土宗 等)에서는 「극락영접만다라(極樂迎接曼荼羅)」라 하여 관음세지(觀音 勢至)를 비롯한 25보살(菩薩)등의 래영도(來迎圖)를 많이 남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혹 극락구품도(極樂九品圖) 등의 극락도(極樂圖)를 살필 수 있으나 하나의 독립(獨立)된 극래영영도(極來迎迎圖)는 찾아볼 수 없고 하단정화(下壇幀畫)를 통(通)하여 그 일부(一部)를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도설하방(圖說下方)에 크게 부각시켜 놓은 아귀상(餓鬼像)을 보자 이 상(像)이 아귀상(餓鬼像)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시식의례(施食儀禮)가 아귀(餓鬼)에게 시식(施食)함에서 비롯된다는 다음과 같은 근거(根據)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난전백아난아난언 여각후삼일명장육진 즉편생지증 시시아난문차어기 심생황포문

아귀언 대사약아사후생아귀자 아금행하방편득면사고……항하사수아귀음식……

(阿難前白阿難阿難言 汝却後三日命將欲盡 即便生之中 是時阿難聞此語已 心生惶怖問 餓鬼言 大士若我死後生餓鬼者 我今行何方便得免斯苦……恒河沙數餓鬼飲食……)」<sup>9)</sup> 그리고 그 아귀(餓鬼)의 형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에서도 알릴 수 있다.

「견일아귀명일도구 기형추루신체고봉 구증화연인여침봉

(見一餓鬼名日焰口 其形醜陋身體枯鋒 口中火然咽如針鋒)」<sup>10)</sup>

「견일대아귀 두여태산 복여수미 인후여침(見一隊餓鬼 頭如太山 腹如須彌 咽喉如針)」<sup>11)</sup>

여기서 보면 아귀(餓鬼)는 몸이 불균형을 이루고 특(特)히 목구멍이 바늘과 같은 것임을 강조(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중생(衆生)의 제생활상(諸生活相)과 지옥(地獄)의 고통상(苦痛相)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중생(衆生)의 생활상(生活相)은 여러 계층별(階層別)으로 묘사(描寫)되고 있다. 지옥(地獄)의 모습도 여러 형상을 살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제상(諸相)은 나누워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옥상 아귀 중생(地獄相 餓鬼 衆生)의 제상(諸相)은 일차적(一次的)으로 육도(六道)의 상(相)을 표현(表現)한 것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육도(六道)란 성문(聲聞), 녹각(緣覺), 보살(菩薩) 불(佛)의 세계(世界)가 상항(常恒)의 세계(世界)인데 반(反)하여 생사윤회(生死輪回)의 세계(世界)를 말하는 것으로 즉(卽) 지옥도(地獄道)·아귀도(餓鬼道)·축생도(畜生道)·수라도(修羅道)·인간도(人間道)·천상도(天上道)를 말한다. 지도(地道)란 일하는 것이 싫은 자(者)로 취생몽사(醉生夢死)의 인세(人世)를 보내고 있는 자(者)를 말하고 아귀도(餓鬼道)란 철저히 굶어죽어도 일하기 싫어 피골(皮骨)이 상접(相接)된 자(者)를 말하며, 축생도(畜生道)란 남에게 매를 맞아야 일하는 자(者), 수라도(修羅道)란 싸우면서 살아가는 자(者), 인간도(人間道)란 오욕(五欲)에 의(依)해서 생활하는 자(者), 천상도(天上道)란 자기(自己) 분제(分齊)에 만족(滿足)하고 있는 자(者) 등을 의미(意味)하는 것이다. 여기 본(本) 도설(圖說)의 지옥상(地獄相)과 아귀상(餓鬼相)은 뚜렷히 구분되어진다. 나머지 제중생(諸衆生)의 생활상(生活相)은 축생도(畜生道)·수라도(修羅道)·인간도(人間道)·천상도(天上道)를 표현(表現)한 것임도 본(本) 도설(圖說)에 잘 묘사(描寫)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육도(六道)의 도설(圖說)은 전술(前述)한 극락접인(極樂接引)과 내영(來迎)의 도설(圖說)과의 대조(對照)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즉(卽) 육도(六道)의 고통(苦痛)을 강조(強調)함은 혼구정토(欣求淨土)와의 대조(對照)에서 극락왕생신앙(極樂往生信仰)을 조장(助長)하는 방편(方便)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特)히 지옥상(地獄相)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고 있음은 극락래영도(極樂來迎圖)와 더불어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의미(意味)를 표출(表出)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다음에 지옥(地獄)의 제상(諸相)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보자.

지장경 지옥명호품(地藏經 地獄名號品)에서는 지옥(地獄)의 제상(諸相)과 그 죄보지사(罪報之事)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sup>12)</sup>

「약설지옥명호 급죄보지사 인자 국부제동방 유산호일철위 기산 흑수 무일월광 유대 지옥 호극무간우유지옥 명일대아비 복유지옥 명일사각……흑유지옥은 취죄인설·사우경 지 흑유지옥 취죄인심 야우식지 흑유지옥 확당성비 자죄인신 흑유지옥 적소동주 사죄인 포 흑유지옥 비맹화취 진급죄인 흑유지옥 일향한영……(略說地獄名號 及罪報之事 仁者問浮提東方 有山號日鐵圍 其山 黑邃 無日月光 有大地獄 號極無間又有地獄 名日大阿鼻



復有地獄 名曰四角……或有地獄은 取罪人舌·使牛耕之 或有地獄 取罪人心 夜又食地 或有地獄 鑊湯 盛沸 煮罪人身 或有地獄 赤燒銅柱 使罪人抱 或有地獄 飛猛火聚 趁及罪人 或有地獄 一向 寒永……)」

이와같은 지옥상(地獄相)이 본도설(本圖設)에 잘 묘사(描寫)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지옥상(地獄相) 곁에 석장(錫杖)을 잡고 지옥문(地獄門)을 들어서는 지옥중(地獄衆)을 바라보고 서있는 지장보살상(地藏菩薩像)을 살필 수 있는데 이는 지장보살(地藏菩薩)이 육도윤회(六道輪廻)하는 지옥중생(地獄衆生)을 모두 구제(救濟) 앉고는 결코 성불(成佛)하지 않겠다는 대서원상(大誓願像)이다.

이상(以上)은 용주사 지장전(龍珠寺 地藏殿)의 하단정화(下壇幀畫)의 내용(內容)이다. 이제 이를 다른 여타(餘他)의 자료(資料)와 비교(比較)하면서 변화(變化)하는 모습을 살펴볼까 한다. 대체적으로 칠여래상(七如來像)은 거의 공통점(共通點)을 이룬다. 그러나 쌍계사(雙溪寺)의 하단정화(下壇幀畫)는 칠여래(七如來)의 배치(配置)를 이단(二段)으로 하여 상(上)에 삼위(三位) 하(下)에 사위(四位)로 하고 있음이 다르고, 또한 신흥사(新興寺)와 현등사(懸燈寺)의 경우에는 칠여래(七如來)를 오여래(五如來)로 하고 있다. 오여래(五如來)로 할 경우를 의궤(儀軌)에 의(依)하여 살펴 보면 다보여래 묘색신여래 광박신여래 이포외여래 감로왕여래(多寶如來 妙色身如來 廣博身如來 離怖畏如來 甘露王如來)로 한다.<sup>13)</sup>

한편 극락래영도(極樂來迎圖)의 경우를 보면 용주사 정화(龍珠寺 幀畫)는 천녀(天女)에 둘러싸인 련(輦)과 서운(瑞雲)을 타고 있는 관세음보살상(觀世音菩薩像)과 지장보살상(地藏菩薩像)만을 묘사(描寫)하고 있는데 신흥사(神勒寺) 대흥사(大興寺) 봉은사(奉恩寺) 신흥사(新興寺)의 경우는 아미타불(阿彌陀佛)과 좌우(左右)의 관세음 대세지(觀世音 大勢至)로 보이는 양보살(兩菩薩)이 서운(瑞雲)을 타고 내영(來迎)하고 있으며 통도사(通度寺)의 경우는 관음보살(觀音菩薩)을 위시(爲始)한 삼보살상(三菩薩像)으로 되어 있고 쌍계사(雙溪寺)의 것은 오위(五位)의 보살상(菩薩像)으로 되어 있으며 현등사(懸燈寺)는 관음 세지(觀音 勢至)로 보이는 양보살상(兩菩薩像)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접인도(接引圖)의 도설(圖說)을 보면 용주사(龍珠寺)의 것은 인로왕보살상(引路王菩薩像)과 천녀(天女)에 둘러 싸인 련(輦)을 묘사(描寫)하고 있는데 신흥사(神勒寺), 신흥사(新興寺), 봉은사(奉恩寺), 대흥사(大興寺)의 것은 지장보살(地藏菩薩)과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로 되어 있으며 현등사(懸燈寺)의 것은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 일위(一位)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쌍계사(雙溪寺)의 것은 인로보살(引路菩薩)을 위시한 보다 많은 보살상(菩薩像)이 묘사(描寫)되어 있다. 이와같은 비교(比較)에서 보면 지장보살(地藏菩薩)은 접인(接引) 내영(來迎) 양(兩)쪽에 묘사(描寫)되고 관음(觀音)은 래영도(來迎圖)에서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은 접인도(接引圖)에서 필수적 조건(必須的 條件)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쌍계사(雙溪寺)의 예(例)와 같이 보다 많은 보살(菩薩)이 내영(來迎)하고 있는 모습은 「왕생아미타불국경(往生阿彌陀佛國經)」에서 밝히고 있는대로 관음 세지(觀音 勢至)를 위시한 무한한 보살(菩薩)을 보내어 영접(迎接)하겠다는 의거(依據)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음 아귀(餓鬼)의 경우를 보면 용주사(龍珠寺)의 것은 일구(一軀)만 나타내고 있는데 여타(餘他)의 다른 자료(資料)는 모두 이구(二軀)를 나타내고 있고 현등사(懸燈寺)의 것이 일구(一軀)로 되어 있다.

「유가집요구아난다라니경구궤의경(瑜伽集要救阿難陀羅尼經口軌儀經)」에 의(依)하면

「견일아귀명알염구(見一餓鬼名曰焰口)」라 한데서 이 일구(一軀)의 아귀(餓鬼) 즉(卽) 염구(焰口)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한편 이와같은 의궤(儀軌)에 따른 신앙의례(信仰儀禮)는 그보다 「항하사수아귀음식(恒河沙數餓鬼飲食)」하는데 있으므로 오히려 많은 아귀(餓鬼)를 대표(代表)하는 것으로 살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 이외(以外) 지옥상(地獄相)을 비롯한 육도(六道)의 제상(諸相)과 성반등(盛飯等)은 묘사법(描寫法)의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같은 육도(六道)의 중생상(衆生相)을 나타내나 표현방법(表現方法)에 있어 시대상(時代相)이 반영(反映)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 무척 흥미(興味)를 끌게 한다. 그 대표적(代表的)인 예(例)의 하나를 보면 일제시(日帝時)에 조성(造成)된 신흥사(新興寺)의 것을 보면 축생상(畜生相)을 일제(日帝)의 헌병(憲兵)에 의(依)해 두들겨 맞는 것으로 표현(表現)하고 있는 것 등이다. 이는 육도(六道)의 표현(表現)이 알려주는 시대상(時代相)의 반영(反映)이라 하겠는데 이 점(點)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研究)의 대상(對象)이 되어질 것으로 믿는다.

### 三. 하단정화의 성격(下壇幀畫의 性格)

하단정화(下壇幀畫)의 도설(圖說)은 「목련경(목(目)連經)」과 「유가집요구아난다라니경구궤의경(瑜伽集要救阿難陀羅尼經口軌儀經)」을 기본(基本) 바탕으로 한 신앙내용(信仰內容)을 도설화(圖說化)한 것은 이미 전술(前述)한 바이다. 그러나 그 이외(以外)에도 정토신앙(淨土信仰) 지장신앙(地藏信仰) 인로왕보살신앙등(引路王菩薩信仰等)이 복합적(複合的)으로 구성(構成)되고 있음도 전기(前記) 하단정화(下壇幀畫)의 도설내용(圖說內容)에서 살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제신앙요소(諸信仰要素)를 지니는 하단정화(下壇幀畫)는 그러면 어떤 성격(性格)의 것인가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목련경(목(目)連經)에 의거(依據)한다는 것은 목련(木連)이 지옥(地獄)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救)하기 위(爲)하여 지옥(地獄)을 방문하고 석존(釋尊)께 자기 어머니를 지옥(地獄)에서 구제(救濟)할 길을 묻자 우선 지옥(地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모든 보살(菩薩)을 청(請)하여 대승경전(大乘經典)을 외우고 읽도록 한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지옥에서는 벗어났으나 아귀(餓鬼)속에 태어나게 되었다. 다시 아귀(餓鬼)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묻자 모든 보살을 청하다가 사십구등(四十九燈)에 불을 켜며 많은 산 목숨을 놓아주고 신번(神幡)을 만들어 놓으면 될 것이라 한다. 그러나 다시 그 어머니는 어미개로 태어난다. 그 고통을 벗어날 길을 석존께 다시 아뢰니 칠월 십오일(七月十五日)에 우란분재(盂蘭盆齋)를 베풀면 어미개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이와같은 석존의 가르침에 따라 행한 바 그 어머니가 비로소 아귀 지옥계(餓鬼 地獄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목련경(목(目)連經)의 대체적인 줄거리이다.<sup>14)</sup>

그런데 이와같은 목련(木連)의 부모(父母)를 위(爲)한 효행심(孝行心)은 바로 우리의 조상숭배신앙(祖先崇拜信仰)과 직결(直結)되어진다. 그리하여 우란분경(盂蘭盆經)의 유통(流通)과 더불어 많은 저술(著述)을 남기게 되고<sup>15)</sup> 또한 우란분재(盂蘭盆齋)의 성행(盛行)을 보게 된다. 이와같은 우란분재(盂蘭盆齋)가 언제부터 신행(信行)되어 왔는가는 정확하지 않으나 「열양세기(洌陽歲時記)」에 의(依)하면 「혹일 내려승불 귀우란분공 유속이중원일...일공양기복(或日 羅麗崇佛 歸盂蘭盆供 遺俗以中元日...一供養祈福)」하고 있음에서 신라시대(新羅時代) 이후(以後)의 것으로 생각되나 보다 구체적(具體的)

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은 고려시대(高麗時代) 이후(以後)가 아닌가 한다.

「칠월계묘 설우란분재 우장령전 이천종명우갑진 우소명승 강목련경<sup>16)</sup>

(七月癸卯 設盂蘭盆齋 于長齡殿 以薦宗冥祐甲辰 又召名僧 講目連經)」

「칠월계미 행신효사 설우란분재(七月癸未 幸神孝寺 說盂蘭盆齋)」<sup>17)</sup>

등(等)의 기사(記事)는 고려시대(高麗時代) 우란분재신앙(盂蘭盆齋信仰)의 소식(消息)을 전(傳)해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우란분재(盂蘭盆齋)가 더욱 일반화(一般化)되어졌던 사실(事實)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나 용재총화(慵齋叢話)등의 중원(中元)에 관한 기사(記事)에서 살필 수 있게 된다.<sup>18)</sup> 이상(以上)의 목련경(목(目)連經) 내용(內容)에서 보면 목련경(목(目)連經)에 의(依)한 신앙(信仰)은 아귀 지옥(餓鬼 地獄)에 떨어진 이의 고통을 구원하기 위(爲)한 신앙(信仰)이요, 그 방법(方法)으로 모든 보살(菩薩)을 청(請)해다가 대승경전(大乘經典)을 듣고 사십구등(四十九燈)을 켜고 방생(放生)하며 신번(神幡)을 만들어 우란분재(盂蘭盆齋)를 여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을 칠월십오일(七月十五日) 해제(解除)하는 날이 택해졌을 따름이다. 이를 정화(幀畫)의 내용(內容)과 비교(比較)하여 보면 지옥 아귀(地獄 餓鬼)의 중생(衆生)을 구제(救濟)한다는 내용(內容) 이외(以外)의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하단정화(下壇幀畫)의 기본(基本)을 이루는 칠여래(七如來)의 의(依)한 신행(信行)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하단정화(下壇幀畫)를 우란분경변상(盂蘭盆經變相)이라 보기는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를 시식의례(施食儀禮)의 절차(節次)에서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즉(卽) 하단정화(下壇幀畫)의 기본신행의례(基本信行儀禮)가 되는 시식의례(施食儀禮)에 의(依)하면 목련경(목(目)連經) 관계(關係)는 다음과 같은 목련청(木連請)이 삽입되어 있을 따름이다.

목련청(木連請)(1)

남무일심봉청 영산당시 수불부촉 척발등공 구모생천 목련존자 계청부왕 동  
청불소 정청묘법 감오숙인 정장정면 양대왕자 유원 승불신역 강림도장 수차공양

목련구모생도리 정장요군견각황

아원쌍친구해탈 동등안양성현향

(南無一心奉請 靈山當時 受佛付囑 擲鉢騰空 救母生天 目連尊者 啓請父王 同請佛所 靜  
聽妙法 感悟宿因 淨藏淨眠 兩大王子 唯願 承佛神力 降臨道場 受此供養

目連救母生忉利 淨藏邀君見覺皇

我願雙親救解脫 同登安養聖賢鄉)

목련청(木連請)(2) (일명백종청(一名百種請))

남무일심봉청 영산당시 시불상수 척발등공 구모생천 신통제일 목련존자 유원자비 강  
림도장 수지공양

연년칠월우란회 시내목련구모사

개개인수무부모 청혼공계제관친

(南無一心奉請 靈山當時 侍佛常隨 擲鉢騰空 救母生天 神通第一 目連尊者 惟願慈悲 降  
臨道場 受地供養

年年七月盂蘭會 是乃目連救母思

箇箇人誰無父母 請魂空界濟寬親)

그러나 이와같은 목련경신앙(目連經信仰)이 일반적인 시식의례(施食儀禮)와 습합(習  
合)될 수 있는 요인(要因)은 「약유선남자선여인 위부모 서사차경 수지독송 금득삼세부

모 칠대선망 즉득 왕생정토 공시해탈 의식자연 장명부귀(若有善男子善女人 爲父母 書寫此經 受持讀誦 今得三世父母 七代先亡 卽得 往生淨土 供時解脫 衣食自然 長命富貴)」

라 한 목련경(목(目)連經)의 결구(結句)가 곧 조상숭배신앙(祖上崇拜信仰)과 습합(習合)될 수 있었고 따라서 조상숭배(祖上崇拜)를 위한 시식의례(施食儀禮)로 전개(展開)되어진 것이라 보아진다. 이는 오늘날의 우란분재(盂蘭盆齋)와 시식의(施食儀)가 습합(習合)되어 있음에서도 살필 수 있게 된다.<sup>19)</sup> 한편 목련경(목(目)連經)과 유가집요구아난다라니염구계의경(瑜伽集要救阿難陀羅尼焰口軌儀經)의 비교(比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경(經)이 모두 아귀(餓鬼)의 구제(救濟)를 선행(先行)한다는 내용(內容)이 동일(同一)하다. 다만 그 방법(方法)이 다를 뿐이다. 즉(卽) 목련경(목(目)連經)에서는 칠월 십오일(七月 十五日)에 우란분재(盂蘭盆齋)를 여는데 반(反)해 후자(後者)는 신조종좌이(晨朝從座而)하며 다라니(陀羅尼)를 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독송(讀誦)의 하나가 칠여래(七如來)의 명호(名號)를 외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란분회(盂蘭盆會)의 밀교화(密敎化)가 시식의(施食儀)로 볼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역시 본정화(本幀畫)에서 중요도설내용(重要圖說內容)을 이루고 있는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을 중심(中心)한 극락접인도(極樂接引圖)를 보기로 하자. 인로왕보살명(引路王菩薩名)은 전기(前記) 양경전(兩經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보살명(菩薩名)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전상(經典上)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보살명(菩薩名)이다.<sup>20)</sup> 다만 우리나라의 범음집(梵音集) 작법귀감(作法龜鑑) 석문의범(釋門儀範)등 의식집(儀式集)의 시식의례(施食儀禮) 혹(或)은 영가천도의례(靈駕薦度儀禮) 중에서만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동보살(同菩薩)은 우리나라에서 창안(創案)한 보살(菩薩)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전술(前述)한 대로 둔황(燉煌) 발견(發見)의 제불화중(諸佛畫中)에는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이란 명문(銘文)과 함께 이같은 보살상(菩薩像)이 발견(發見)되어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오대다라니당(五代陀羅尼幢)이나 소순(蘇洵)의기(記) 같은 중국 고문헌(中國 古文獻)에는 다음과 같은 지장보살(地藏菩薩)과 인로보살(引路菩薩)을 나란히 병기(並記)하고 있다. <sup>21)</sup>

(1) 오대다라니당(五代陀羅尼幢)의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

「사관음경일권 법화경일권 금광명경일부 지장본원경일부 금강경일권 약사경일권 나왕경 입당자일제승일칠 지장보살일구 인로보살일구(寫觀音經一卷 法花經一卷 金光明經一部 地藏本願經一部 金剛經一卷 藥師經一卷 羅王經 立幢子日齊僧一七 地藏菩薩一軀 引路菩薩一軀)」

(2) 소순조립(蘇洵造立)의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

지지송소순의 가우집 권십사·극락원조육보살기(地地宋蘇洵의 嘉祐集 卷十四·極樂院造六菩薩記)에

「……중략 어시조육보살배감좌이소 개석씨 소위관음 세지 천장 지장 해원결 인로왕자 치어 극락원(……中略 於是造六菩薩拜龕座二所 蓋釋氏 所謂觀音 勢至 天藏 地藏 解冤結 引路王子 置於 極樂願)」

이상(以上)의 양기록(兩記錄)은 다라니당(陀羅尼幢)을 세워 십칠명(十七名)의 승려(僧侶)를 제(齊)하여 법요(法要)를 행(行)하고 이로서 근친 선망자(近親 先亡者)의 생천(生天)과 현존자(現存者)의 이익(利益)을 기원(祈願)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인로왕보살신앙(引路王菩薩信仰)이 어디서 연유하는 것인지는 분명(分明)하지 않으나 시식의례(施食儀禮) 등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전기(前記) 중국(中國)의 고기록(古記錄)에서

살필 수 있는 인로왕보살신앙(引路王菩薩信仰)과 거이 같은 형태(形態)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생각컨대 이상(以上)과 같은 인로왕보살신앙(引路王菩薩信仰)은 중국인(中國人)에 의(依)해 생성(生成)된 신앙(信仰)이라 보아지며 명계지옥(冥界地獄)의 존재(存在)를 믿고 있음과 동시(同時)에 천상(天上)이나 다수정토(多數淨土)를 믿고 있음이 그 어딘가에 왕생(往生)할 것을 원(願)하고 있었으므로 아미타정토(阿彌陀淨土)와 같이 관음(觀音) 세지등(勢至等)의 특정(特定)의 보살(菩薩)이 신앙자(信仰者)에 대(對)해 내영(來迎)함을 분명(分明)히 설(說)하고 있는데 반(反)해 정토(淨土)에의 안내(案内) 인도(引導)의 보살(菩薩) 즉(卽)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을 생각해 내고 그에 의(依)한 신앙(信仰)이 행(行)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sup>22)</sup>

한편 관음(觀音) 세지(勢至)를 중심(中心)으로 한 극락래영도(極樂來迎圖)는 정토각경전(淨土各經典)에 의(依)한 신앙형태(信仰形態)가 일반화(一般化)되어진 것임으로 이는 생략하고 다음에는 지장보살(地藏菩薩)과 육도(六道)에 대(對)한 도설내용(圖說內容)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불교(佛敎)에서는 흔히 전세계(全世界)를 십계(十界)로 나누어 생각한다. 그리고 그를 다시 둘로 나누어 미계(迷界)와 오계(悟界)로 하여 미계(迷界)는 지옥(地獄)·아귀(餓鬼)·축생(畜生)·아수라(阿修羅)·인간(人間)·천상(天上)의 육도(六道)를 말하고 오계(悟界)는 성문(聲聞) 연각(緣覺) 보살(菩薩) 불(佛)의 사계(四界)를 말한다는 것은 이미 전술(前述)한 바이나 미계(迷界)인 육도(六道)는 항상 윤회(輪廻)하여 쉽게 이탈(離脫)할 수 없으므로 이를 염리(厭離)하여 오계(悟界)에 들기를 권장하는 것이 전불교(全佛敎)의 교설(敎說)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구(永久)히 고통받는 육도(六道)의 중생(衆生)을 구제(救濟)하려 서원(誓願)한 보살(菩薩)이 지장보살(地藏菩薩)이다. 그리하여 지장보살(地藏菩薩)은 육도(六道)의 각중생(各衆生)을 구제(救濟)하기 위(爲)하여 여러몸을 나타낸다는데 육도(六道)와 지장보살(地藏菩薩)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sup>23)</sup> 즉(卽) 지장(地藏)은 제각기 기근(機根)이 다른 육도(六道)에 각각(各各)의 육지장(六地藏)의 모습을 나타내어 고통(苦痛)받는 중생(衆生)을 구제(救濟)한다는 것이다.

- (1) 지옥(地獄)……대정지비지장보살(大定智悲地藏菩薩)
- (2) 아귀(餓鬼)……대덕청정지장보살(大德淸淨地藏菩薩)
- (3) 축생(畜生)……대광명지장보살(大光明地藏菩薩)
- (4) 수라(修羅)……청정무구지장보살(淸淨無垢地藏菩薩)
- (5) 인간(人間)……대청정지장보살(大淸淨地藏菩薩)
- (6) 천상(天上)……대견고지장보살(大堅固地藏菩薩)

이와같은 육도(六道) 특(特)히 인간계(人間界)의 고통(苦痛)을 구제(救濟)하겠다고 서원(誓願)한 여래(如來)와 보살(菩薩)은 많다. 그 중에도 특히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은 너무나 잘 알려진菩薩이다. 그러나 이는 현세이익(現世利益)을 목적(目的)으로 한데 반(反)하여 지장보살(地藏菩薩)은 특(特)히 과거(過去)에 사거(死去)한 인간(人間)의 죄장(罪障)을 구제(救濟)한다는 것으로 신앙(信仰)되어져 왔다. 그리하여 지장보살(地藏菩薩)하면 죽은 사람의 업장(業障)을 구제(救濟)하는 보살(菩薩)로 알려진 것이 오늘의 현실(現實)이다. 대체로 지장보살상(地藏菩薩像)은 비구형(比丘形)에 좌수(左手)에는 보주(寶珠)를 들고 우수(右手)에는 석장(錫杖)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조성(造成)되어지는데 여기 석장(錫杖)은 지옥문(地獄門)을 열게하는 작용(作用)을 한다고 한다. 본(本) 하단정화(下壇幀畵)의 지옥중생(地獄衆生) 곁에 석장(錫杖)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은 그를 표현

(表現)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가천도의례(靈駕薦度儀禮)나 시식의례(施食儀禮)에 「남무명양구고지장보살(南無冥陽救苦地藏菩薩)」의 절차(節次)가 반드시 따르는 것도 이와같은 연유에서이다.

이상(以上)에서 살핀 하단정화(下壇幀畫)의 성격(性格)을 총정리(總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1. 아귀(餓鬼)에게 음식(飮食)을 베풀고 보제심(菩提心)을 일으키게 하고 그 공덕(功德)을 시주(施主)가 바라는 영가(靈駕)에 회향(廻向)하며 정토(淨土)에 왕생(往生)하게 한다는 일차적(一次的)인 신행동기(信行動機)를 살필 수 있는데 이는 목련경(목(目)連經)과 유가집요구아난다라니염구계의경(瑜伽集要救阿難陀羅尼焰口軌儀經)에 의거한다.

2. 지옥(地獄)을 떠나 정토왕생(淨土往生)을 목적(目的)으로 함에서 지장신앙(地藏信仰)에 의거하게 된다.

3. 지옥(地獄)을 떠나 정토(淨土)에 이르게 하는 접인(接引)의 도움을 필요(必要)로 하게 되어 인로왕보살신앙(引路王菩薩信仰)이 첨가된다.

4. 예토(穢土)를 염리(厭離)하고 정토(淨土)를 혼구(欣求)하여 정토(淨土)의 래영도(來迎圖)가 그려진다.

5. 이와같은 목적달성(目的達成)을 위(爲)해 제승(齊僧)을 초청하여 성반(盛飯)을 베풀고 제의식(齋儀式)을 설(說)한다.

이상(以上)과 같은 신앙동기(信仰動機)와 내용(內容)을 도설화(圖說化)한 것이 하단정화(下壇幀畫)이다.

#### 四. 결 론(結 論)

하단정화(下壇幀畫)는 일명(一名) 영단정화(靈壇幀畫), 감로정화(甘露幀畫)라고도 한다. 영단정화(靈壇幀畫)란 영가(靈駕)의 극락천도(極樂薦度)를 위(爲)한 신앙내용(信仰內容)을 도설화(圖說化)한 것이기 때문에 이르는 말이고 감로정화(甘露幀畫)란 아귀(餓鬼)혹(或)은 지옥중생(地獄衆生)에 감로미(甘露味)를 베풀다는 신앙내용(信仰內容)이 담겨졌기 때문에 붙여진 말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하단정화(下壇幀畫)의 내용(內容)은 목련경신앙 시아귀신앙 정토신앙 인로왕보살신앙 지장신앙 등(目連經信仰 施餓鬼信仰 淨土信仰 引路王菩薩信仰 地藏信仰 等)이 복합적으로 교류(交流)하여 형성(形成)된 것이라 하겠다. 여기 목련경신앙(目連經信仰)은 재래(在來)의 조상숭배신앙(祖上崇拜信仰)과 습합(習合)되어 쉽게 일반화(一般化)될수 있었고 목련경(目連經) 내용(內容)의 시식귀신앙(施食鬼信仰)이 밀교(密敎)의 유가집요구아난다라니염구계의경(瑜伽集要救阿難陀羅尼焰口軌儀經)을 수용(受容)하므로써 칠여래신앙(七如來信仰)과 더불어 밀교화(密敎化)하였다. 그리고 동신앙(同信仰)의 주목적(主目的)이 근친(近親) 선망령(先亡靈)의 정토왕생(淨土往生)에 있다는데서 정토신앙 인로왕보살신앙 지장신앙(淨土信仰 引路王菩薩信仰 地藏信仰)과 결부되어졌다. 그러므로 본도설(本圖設)의 구도(構圖)는 전기신앙(前記信仰) 내용(內容)을 반영한 정토래영도(淨土來迎圖) 정토접인도(淨土接引圖) 칠여래(七如來)·지옥도(地獄圖)·아귀육도도등(餓鬼六道圖等)으로 구성(構成)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삼단(三段)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단(上段)은 정토도(淨土圖), 중단(中段)은 정토(淨土)에 이르기 위(爲)하여 공덕(功德)을 쌓는 제의식(齋儀式) 광경, 하단(下壇)은 지옥(地獄) 아귀(餓

鬼)를 비롯하여 육도중생(六道衆生)의 제고통상 등(諸苦痛相等)이 그것이다. 이와같은 삼단구조(三段構造)는 하단(下段)은 악취(惡趣)이기 때문에 이를 염리(厭離)할 것을 권장한 것이라 보아지며 한편 육도(六道)의 고통(苦痛)을 강조(強調)함에 반(反)하여 상단(上段)은 기구정토(祈求淨土)의 사상(思想)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중단(中段)은 정토왕생(淨土往生)을 위(爲)한 선행(善行)의 공덕(功德)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하단정화(下壇幀畫)는 고(苦)의 세계(世界)와 극락(極樂)을 대비(對比)하여 권선징악(勸善懲惡)하려는 사상적(思想的) 동기(動機)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보아진다. 그리고 본(本) 정화(幀畫)에서 또한 주목(注目)을 끄는 것은 육도(六道)의 제상(諸相)과 재의식광경(齋儀式光景)의 묘사(描寫)이다. 여기 전자(前者)는 육도상(六道相)을 정화제작(幀畫制作) 당시의 여러 생활상을 빌려 묘사(描寫)하고 있다는데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理解)하는데 좋은 자료(資料)가 되고 있으며 후자(後者)도 역시(亦是) 불교의식(佛敎儀式)의 한 모습을 살필 수 있어 좋은 자료(資料)를 전(傳)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 점(點) 후일(後日)을 기(期)하며 하나의 연구과제(研究課題)로 남겨 둔다.

<註>

- 1) 拙稿 韓國佛敎信仰의 三壇構造 文化財 第九號 文化財管理局 1975.
- 2) 大正新修大藏經 卷五十三
- 3) 大正新修大藏經 卷二十一 密敎部
- 4) 前傷書
- 5) 餓鬼는 여러 經典에 나타나나 七如來와 함께 나타나는 것은 密敎의 陀羅尼經이기 때문이다.
- 6) 塚本善隆 「引路王菩薩について」 東方學報 京都一冊 p.145
- 7) 拙稿 引路王菩薩信仰 宗敎史研究 第二輯 韓國宗敎史學會 1973.
- 8) 新修大藏經 卷四十九 諸宗部
- 9) 前掲 註(7) 參照
- 10) 前掲書
- 11) 姜无求譯·目連經 p.27 昌震社 1977.
- 12) 地藏經 地裝菩薩本願經 卷中 地獄名號品 第五
- 13) 釋門儀範 水陸齋儀編
- 14) 姜无求譯 目連經 (昌震社) 1977.
- 15) 義天의 新編諸宗敎藏 總錄卷 第一에 孟蘭盆經에 관한 著述名이 보인다.
- 16) 高麗史 卷十二
- 17) 高麗史 卷三十
- 18) 「七月十五日 俗呼爲百種 僧家衆百種花果 設孟蘭盆……」
- 19) 孟蘭盆齋는 七月十五日에 行하는 것이고 施食儀는 亡人의 忌日이나 四十九齋等에서 行하는 것이나 오늘날 이 兩儀禮의 節次나 內容은 同一한 것으로 行한다.
- 20) 日本續藏經 第輯二編 乙第二三奪 大通方廣經에 열거하고 있는 二百餘의 菩薩名 中 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菩薩이다.
- 21) 「五代之 後唐 明宗 長興三年(932) 二月 建立의 記載가 있는 佛頂尊勝陀羅尼經幢의 拓本」 東方學報 京都一冊 (昭和 6年) 所收
- 22) 拙稿 引路王菩薩信仰, 宗敎史研究 第二輯 韓國宗敎史學會 1973.
- 23) 地藏經·分身集會品 參照